

깊이 마음쓰신 의장품문제

2015년 11월 어느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새로 만든 지하철동차의 시운전이 진행되는 곳에 나오시였다.

지하철동차의 객실안으로 들어서시여 그안을 둘러보시던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전용좌석표식이 있는 곳에서 시선을 멈추시였다.

거기에는 늙은이와 장애인, 임신부와 아기어머니 전용좌석임을 알리는 표식이 새겨져있었다.

사실 그 표식은 한달전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에서 새로 만든 지하철동차를 보아주시면서 의장품들의 요소요소를 미학적으로나 실용성에 있어서 흠잡을데없이 만들어 설치할데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말씀에 의하여 새로 새겨진것이였다.

한동안 그것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객차에 늙은이와 장애인들의 좌석을 따로 정해주라고 하였는데 좌석우에 표식은 하였지만 색깔을 바꾸지 못하였다고 하시였다.

이윽하여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의자를 만져보시며 객차에 접이식 의자를 놓아주어 밀차나 아기차를 세워놓을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접이식의자를 객차안에 다 놓으려고 하지 말고 일정한 구간에만 놓아주는것이 좋겠다고 이르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전동차에 오래동안 의자에 앉아 사무를 보는 사람들에게 좋은 의자인 선의자를 놓아줄데 대하여서도 가르쳐주시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문화적인 지하철동차를 마련해주시려 그 의장품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보살펴주시는 우리의 총비서동지,

이렇듯 다심한 어버이사랑에 떠받들려 지하철동차의 전용좌석의자는 일반좌석의자와 구별되는 색깔로 바뀌게 되였으며 객차안에는 서있는 상태에서 걸터앉을수 있는 선의자들도 놓여지게 되였다.